

연계동향

◇ 바브콕 협력회

지난 10월 17일 서울 워커힐에서는 미국 바브콕종계대표 일본바브콕종계장 대표 등 동남아 8개국에서 대표들이 모여 국동 대회를 갖고 보다 알찬 판매촉진 및 증대방안을 토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에는 국내 실 사양업자들을 초청하여 미국 바브콕회사의 현황 및 연구 개발과정을 소개하고 바브콕의 우수성을 발표하였다.

◇ 하이라인 전국대리점 회의

지난 10월 중순 제주도 하이라인대리점(대표 李一洙) 신규개설 축하겸 전국 9개 대리점 대표들이 모여 친목을 겸한 판매회의를 가졌다. 3박 4일의 본 회의에서는 특히 내년도의 판매활동에서는 상호협조 및 하이라인 한국총대리점의 지원을 요망하였다.

◇ 한국 세이버 협회

지난 10월 중순 카나다 세이버 원종농장 사장이 내한하여 한국 세이버협회의 회원을 방문하고 내년도의 한국양계전망 및 판매증진책, 세이버종계의 사양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등 광범위한 의견 청취를 하고 10월 말 귀국하였다.

◇ 한국가금협회 월례강습회

지난 11월 1일 신촌 서울축협회의실에서는 민덕기(인산산원 전무) 김우호(춘천농대 교수)의 “부로일라 동향과 도계전망” “백혈병”에 대하여 각각 강연이 있었다.

특히 이번 강습회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본 “월간 양계” 창간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20여명이 정기구독을 신청받았으며 또 격려를 받았다.

◇ 사료협회

사료협회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금 11월 중순

에 도입키로 예정된 옥수수 46,000t의 도입이 12월 중순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일본에서 2,000t의 옥수수를 긴급 도입키로 결정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 옥수수의 긴급도입이 늦어지면 일부 배합사료공장은 조업을 중단 혹은 격감해야 되나 국내 총 재고량으로 볼 때 절대량은 부족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소량의 옥수수를 일본을 거쳐 도입함으로서 가격면에 있어서 약간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배합사료공장으로 볼 때는 약간의 출혈이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동아상사

우리나라 재벌급에 속하는 대한제분(이 한언)은 방계업체인 동아상사(종합무역상사)가 작년에 축산부를 신설하고 데칼브 종계를 사육한 경험을 살려 7년전에 계획했던 배합사료공장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초 가동을 목표로 인천지구를 후보지로 하고 있으며 규모는 일체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 현대양계 사무실이전

동업지 현대양계사는 적선동 사무실을 지난달 31일 서울 종구 북창동 93-33 제남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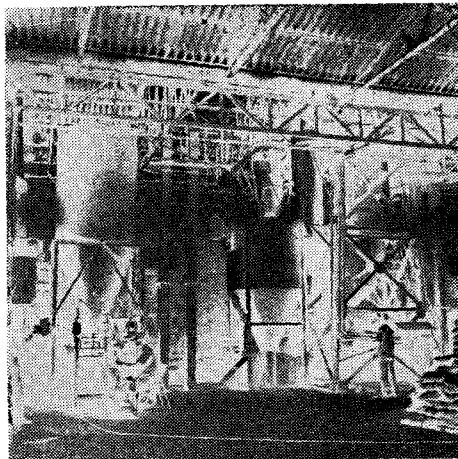
지난 10월 18일 서울 삼양그릴에서는 수원동 대교수 오봉국박사 주제아래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결성 준비회를 열고 우선 25명의 가입회원자의 만장일치로 지부장에 오봉국박사를 추대하였다. 본 세계가금학회는 본부를 영국에 두고 있으며 계간으로 “WORLD POULTRY JOURNAL”지를 발간하고 있다. 회원은 이 회지를 받을 수 있으며(년회비 1,600원) 또 4년마다 열리는 세계가금학회에 참석할 수 있다(70년도 개최지 스웨덴).

세계가금학회에 가입회원자는 한국가금협회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Tel 26-0321).

업계동향

◇ 흥성사료

지난 3년간 알찬 성장을 거듭해온 흥성사료는 9월 말로 일산 130톤으로 배합사료 생산능력을 배가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 실험농장을 확장하여 내년 중으로 10,000수의 육용종 부로일라를 확보할 예정이며 원료실험분석실은 지난달에 착공하여 금년 중으로 완공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인적자원을 채우기 위하여 3명의 대학졸업생을 보강할 예정이다.



<사진은 증설된 흥성사료공장>

◇ 한국 축산개발(株)

종합무역상 천우사가 불실기업체로 정리됨에 따라 그 방계회사인 한국축산개발주식회사도 공매에 붙여 화성사 대표인 정동영씨에 인계되어 지난 월말에 그 경영주가 바뀌었는데 본 한국축산개발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대규모 축산(양계업)의 개척자로써 업계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 초생추 감별협회

초생추 감별협회에서는 1969년도 하반기 초생추 감별사 시험을 1969. 11. 20~21일 양일간 충신동 소재 감별협회에서 실시한다(Tel 74-7960)

◇ 업계 인사이동

- 유한양행 : 서울대 축산과 출신 최명숙 신규채용 농축약품 판매원
- 제일산업 : 유한양행 판매원 최인환씨를 특채 기획과 담당
- 대원사료 : 전 대전농전 축산과 강사 이돈성씨를 공장장으로 특채
- 태평케미칼 : 전 극동제약 판매원 김무진씨를 영업과장으로 특채
- 한국사료 : 이상칠씨(농촌지도소)를 특채 생산부장에 임명함.
- 한국카아길 : 서울농대 축산과 출신 손영씨를 신규채용 중계장(평택) 관리에 임함.
- 한미제약 : 수의사 이각모씨 판매원으로 특채
- 친일곡산 : 서울농대 축산과 출신 강형모씨를 특채 사료공장 담당
- 삼우화학 : 서울농대 축산과 출신 박근수씨를 약품판매원으로 채용

◇ 한국 가금회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는 1969년도 정기총회를 1969. 12. 6. 아침 10시부터 서울시 축산협동조합 회의실(신촌)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회원 및 많은 양계가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시험 완료

한국가금협회에서 실시한 육용계 경제능력 검정시험이 지난 11. 20일 수원의 서울대농대 육추실에서 끝났다. 그 결과는 곧 발표가 되리라 한다.

